

보도시점 2023. 10. 24.(화) 14:00 배포 2023. 10. 24.(화) 11:00

배추 방출 확대, 대파·생강 납품비 지원 등 물가 안정에 총력

- 김병환 기재부 1차관,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 점검
- 농협 등과 협업, 2023년산 쌀 할인, 김장 채소 할인 지원도

김병환 기획재정부 1차관은 10월 24일(화) 오전 창동 하나로마트를 방문하여 주요 농축산물 수급 및 가격 동향을 점검하는 한편 하나로마트 관계자와 직원들을 격려하고 현장 소비자 반응에 대한 의견을 청취하였습니다.

김 차관은 정부가 공급 확대와 할인지원 등을 통해 먹거리 물가 안정에 최선을 다하고 있음을 강조하였습니다. 정부는 지난 19일부터 배추 일 방출 물량을 확대(50톤→100톤/일)하였으며, 11월부터 자조금과 연계한 사과 비정형과 (못난이 사과) 공급을 추진하고 대파·생강 등 가격이 상승한 김장 채소에 대해서는 산지농협의 납품 비용을 지원할 계획임을 밝혔습니다. 이와 함께 지난 8월부터 수입한 씨알(종란)*이 부화한 육계가 10월 10일부터 시장에 공급되기 시작하여 닭고기 수급도 점차 개선될 것이라고 설명했습니다.

* 씨알(종란) 수입 : (계획) 529만개, (10.20일 기준 실적) 397만개, (11.6일까지) 잔여 132만개 완료

또한, 김 차관은 정부가 농협, 자조금 협회 등과 협력하여 다양한 할인 행사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. 먼저 10월 19일부터 농축산물 할인지원*이 재개되었고, 11월에는 김장재료를 중심으로 할인행사를 지속할 예정임을 설명했습니다. 오늘부터 창동 하나로마트를 비롯한 전국 40개 마트에서 2023년산 쌀 할인 판매 행사**가 시작되며 10월 말부터 자조금과 연계한 한우 할인 행사도 진행될 예정임을 언급하였습니다.

* 10.19~25일 할인 품목 : 상추, 시금치, 오이, 청양고추, 갯잎, 생강, 사과, 말린 고추 (고춧가루 포함), 대파, 배추, 양배추, 애호박

** (기간) 10.24~, (내용) 업체별 대표 상품(23년산 쌀 20kg)의 쌀값 3,000원/포대 지원

수산물의 경우, 명태·고등어·오징어·참조기·천일염 5개를 포함한 국내산 수산물 전 품목을 할인 중으로 11월에도 천일염·굴·새우젓 등 김장철 품목을 포함하여 할인을 지속할 예정임을 밝혔습니다.

한편, 김 차관은 그간 정부의 물가 안정 노력에 적극적으로 협조하고 다양한 자체 할인행사*를 병행하고 있는 농협에 감사를 표하면서 앞으로도 수급 안정을 위한 작황 관리, 공급 확대, 할인지원 등에 온 힘을 다해줄 것을 당부하였습니다.

* 전국 하나로마트에서 '살 맛 나는 가을·더 큰 세일·하나로에서 맛나요' 행사 진행 (10.19~11.1), 사과, 양파, 마늘, 한우 등심, 삼겹살 등 42개 농축산물 최대 40% 할인

담당 부서	경제정책국 물가정책과	책임자	과 장	장보현 (044-215-2770)
		담당자	사무관	이종희 (ljh930824@korea.kr)

